

2008 국제학술회의

## 대중국 광역경제특구 조성방안

조 성 호  
(경기개발연구원)

# 대중국 광역경제특구 조성방안

조성호(경기개발연구원)

## I. 문제의 제기

- 중국의 포동, 빈하이 신구 등 거점개발전략을 통한 제조업 육성으로 말미암아, 향후 한국의 제조업은 토지, 노동, 기술 등에서 중국에 열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됨
- 그리고 서비스업 경제시대에 북경올림픽 이후에 전개될 중국의 대량관광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의 모색도** 시급함
- 이러한 시대적 여건 속에서, 한국경제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지**가 중국과 가깝고 저렴한 가용지가 풍부한 **서해안 벨트**임
- 따라서 **참여정부**에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여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응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 규모가 작고 수도권 규제로 말미암아 한계를 노정하였음
- 최근 들어 **新정부**는 **새만금**을 두바이처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와 국제공항 등의 접근성이 저조하여 개발의 한계가 예상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충족시키고 중국경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으로, **인천~시화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이르는 지역을 **대중국 광역경제특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함

## II. 21C 동북아 경제시대의 서해안권의 역할

### 1. 중국경제의 급부상

- 중국은 1979년부터 5개 경제특구(선전, 주해, 산둥, 하문, 해남도 전체)를 두어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
  - 5대 경제특구의 총 면적은 4억7,600만㎡이며, 수출액은 1,338억 달러('05년)로 중국 수출액의 18%를 차지함.
- 1980년 중반이후 중국내 타 지역과의 단절형인 경제특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기술개발구를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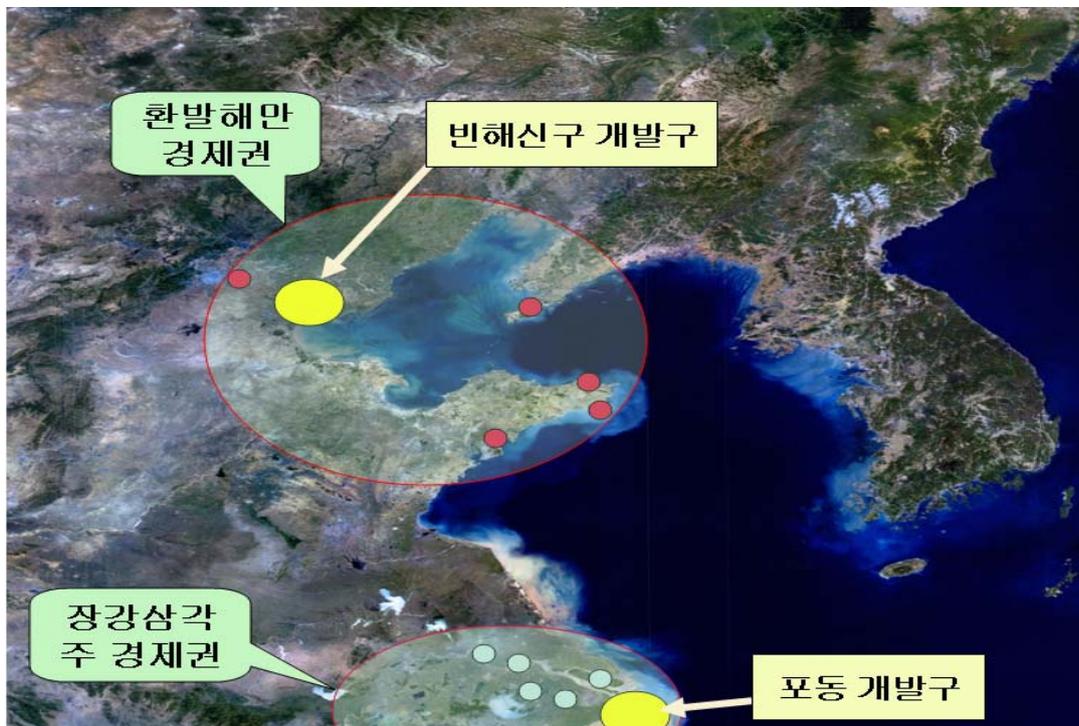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의 비교》

구 분	경제 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면적	• 4억7,600만㎡	• 35억㎡(동부연안)
특징	• 중국내부와 격리	• 중국내부와 연계 강화
기능	• 대외개방 정책의 창구역할 • 수출자유지역 + 수출가공지역 • 특구를 통한 자본주의 실험	• 외자유치, 수출증대 • 산업집적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발전역량 주변에 확산
유입 자본	• 위탁가공 및 노동집약적 산업위주 • 화교자본 비중 높음	• 제조업, 수출산업, 기술집약적 인 하이테크산업 • 글로벌기업 비중 높음 • 중국기업 입주 비중 높음

-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는 초대형 포동신구(개발구)를 국가주도로 개발하여 중국의 경제중심지로 성장시킴
  - 포동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장강삼각주 경제권에 핵심거점지역인 포동에 금융, 물류 등 서비스산업, 하이테크산업, R&D 등을 집중
  - 주변 거점지역인 영파, 항주, 소주, 무석, 남경 등 지역에 첨단기술산업 및 제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핵심거점과 주변거점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발전전략을 추진

- 2000년대 들어 북방지역의 대외개방 창구로서 **텐진에 빈해신구**를 포동신구보다 큰 규모로 개발 중임
  - 2005년 빈해신구의 외자유치 금액은 25.3억 달러, 포동신구는 31.1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빈해신구에 입주한 세계 500대 기업은 203개에 달하고 있음
  - 포동신구, 빈해신구 등 핵심거점지역에 대한 글로벌기업의 집적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의 속도를 감안할 때, 중국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거점지역으로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환황해 경제권의 양대 거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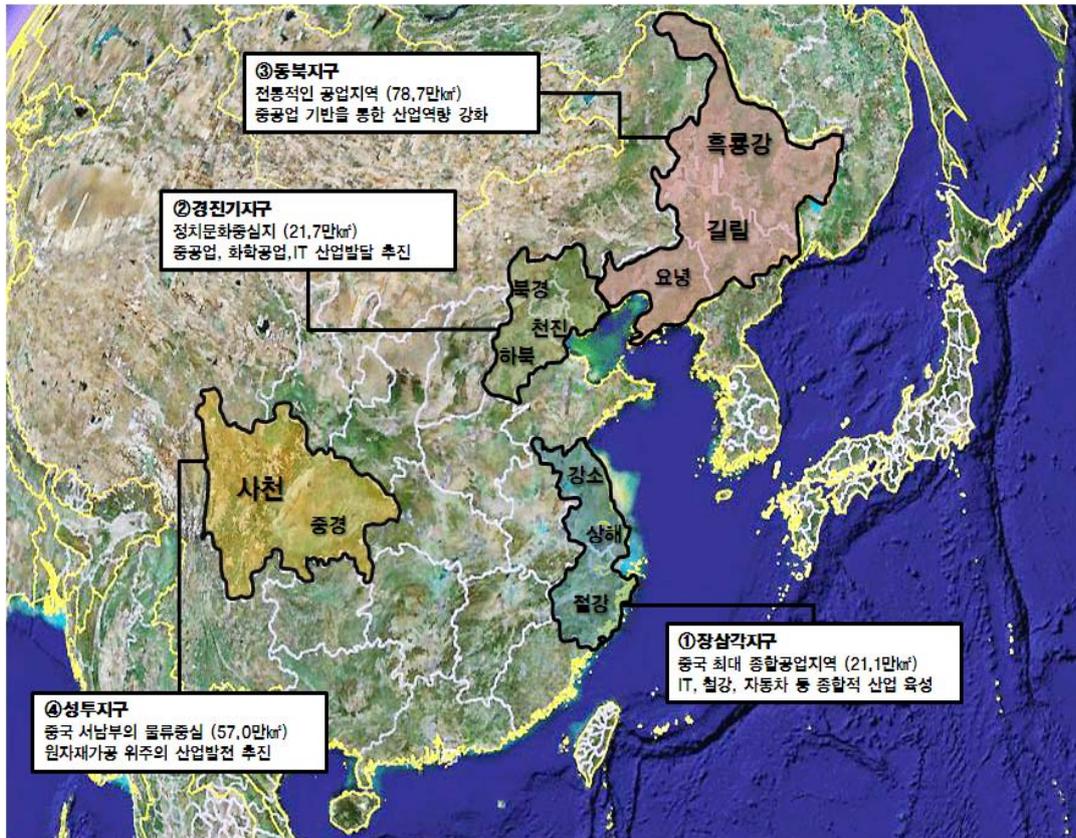
《텐진 빈해신구와 상해 포동신구의 비교》

구 분	텐진 빈해신구	상해 포동신구
면 적	• 22억7,000㎡(천진시의 20.0%)	• 5억3,300㎡(상해시의 8.4%)
발전방향	• 북방지역의 대외개방 창구 • 물류 + 제조업	• 중국의 경제중심지 • 금융 + 물류 + R&D
주요기능	• 경제기술개발구 + 보세구 + 수출가공구	• 첨단기술개발구 + 보세구 + 수출가공구 + 금융구
주변거점지역	• 경진기지역(북경, 하북성) • 교동반도(청도, 위해, 연태) • 요동반도(대련)	• 강소성 남부(소주, 남통, 무석, 남경 등) • 절강성 북부(항주, 영파 등)
FDI(2005년 기준)	• 25.3억 달러	• 31.1억 달러

2. 중국경제의 미래 발전전략(11·5계획)

- 중국은 11·5 계획('05)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4대 경제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발전을 계획하였으며, 이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주력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11·5계획은 중국이 WTO에 가입 이후 내놓은 첫 5개년 계획으로 향후 중국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러한 시점에서 11·5 계획에서 중점 발전지역으로 삼고 있는 4대 경제구별 발전전략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4대 경제구는 중국인구의 35.3%, GDP는 중국 전체의 54.4%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핵심지역임

《중국 4대 경제구별 발전전략》



- 11·5 계획의 중점육성산업인 하이테크 산업이 모든 4대 경제구의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중국정부의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지적 재산권 보유기술 확대를 통한 국내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한 것임
- 또한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자원절약, 환경개선, 기술집약을 통한 제조업 기술수준 향상, 특히 하이테크 산업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한 경제리스크 해결을 목표로 함

《11·5 계획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발전 계획
서부지구	- 기초시설건설과 생태환경보호 강화, 과학기술교육발전 및 인재개발, 보유자원활용, 특수산업 개발
동북지구	- 산업구조 조정 강화, 국유기업개혁, 농업발전, 장비제조업 진흥, 자원고갈형 산업도시 탈피
중부지구	- 주요 식량생산지역 건설, 비교우위에 있는 에너지 및 제조업의 발전, 기초시설 건설 강화
동부지구	- 산업구조 고도화,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동부지역은 각 지역의 협력발전에 기초지역으로 동부지역우선 발전을 통해 중서부지역의 발전을 유도

□ 하이테크 기술 및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京津冀地區의 북경과 천진, 長三角地區의 상해와 강소성은 이미 우리와의 교역에서 대부분의 수출 및 수입상품이 중복되고 있어 향후 우리의 수출 상품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4대 경제구 - 한국 간 경제교류 현황》

구분	京津冀	長三角	東北	成渝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4대경제구에서 두 번째로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한 지역	한국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며, 대중 투자규모가 가장 큰 지역	4대 경제구에서 세 번째 교역 및 투자규모 지역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가장 적은 지역
한국기업의 주요투자 업종	수송기계, 음식료품, 석유화학, 1차금속, 전자통신장비	음식료품, 기계장비, 전자통신장비, 섬유 의류, 수송기계 등	신발가죽, 목재가구, 섬유 의류, 음식료품, 종이인쇄	섬유 의류

- 특히, 東北地區는 11·5계획에 맞추어 지역적 특색을 살린 종합화학공업단지, 전국최대의 자동차 공업기지 건설(길림성)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과 화공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의 주요 투자지역인 京津冀地區와 長三角地區 외에 11·5계획의 주요발전지역인 東北地區와 成渝地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투자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함
- 중국이 모든 4대 경제구의 중점산업으로서 하이테크 산업을 선정한 것은 중국정부의 첨단산업 육성과 보유기술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이에 따라 京津冀地區와 長三角地區에 집중된 우리의 수출을 동북 및 서부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京津冀地區와 長三角地區의 자동차 및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에 부응하여 완제품보다는 기술주도적인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함
- 2005년 대비 한국과의 교역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長三角地區이며, 특히 강소성과의 무역수지 흑자는 70.7%를 기록하고 있음
  - 강소성의 대한국 주요 수입품은 LCD, 집적회로, 합성수지 등 첨단제품과 기계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앞으로 京津冀地區와 長三角地區에 우리의 첨단제조업마저 잠식이 예상되므로, 우리는 R&D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해야 함
  - 중국은 육체국가, 한국은 두뇌국가로 차별화

### 3. 동북아 경제의 전망

- 동북아(한, 중, 일) 지역은 인구 153,653만명, GDP(환율기준) 7,0510억불, GDP(구매력기준) 14,6480억불을 감안할 때, 세계인구의 23.6%, 세계구매력 GDP의 약 24.2%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동아시아권은 세계인구의 31%를 차지하며 구매력 기준 GDP 비중 29%

에 해당하는 경제권으로, WTO체제하의 지역 간 경쟁과 대도시권간 경쟁 격화로 점차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세계대비 비중》

(단위: 만명, 십억\$)

국 가	인 구('6)	비 중	GDP (환율기준 '5)	비 중	GDP (구매력기준'5)	비 중
세 계	652,250	100.0	43,070	100.0	60,630	100
한 국	4,884	0.7	801	1.9	1,101	1.8
중 국	1311,39	20.1	2,225	5.1	8,883	14.6
일 본	12,746	2.0	4,025	9.3	4,664	6.6
ASEAN10국	58,083	8.9	841	2.0	2,613	4.3
ASEAN 10국 +한중일	202,226	31.0	7,891	18.3	17,261	28.5

주) World Factbook, CIA 2006.

ASEAN10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 중국은 원자바오 중국총리 주도로 열린 필리핀 세부 아시안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를 구상,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자유무역 및 경제공동체화를 추진중임
- 일본은 '02년 수도권 등 대도시권규제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대도시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대도시권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있음
  - 동북아 경제주도권을 강화하고자 리니어신칸센을 축으로 3대 대도시권을 1시간 통근권으로 묶는 대도시권벨트화 프로젝트(열도 동경화 프로젝트 '20년까지 약 80조원 투자)를 추진함

4. 한국의 국가발전전략과 서해안권의 역할과 과제

1)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저가품 시장은 물론, 첨단제품마저도 시장잠식이 가속화
  - 京津冀地區의 북경과 천진, 長三角地區의 상해와 강소성은 우리나라의 5대

주력상품과 중복되어, 향후 우리의 수출경쟁력 저하 우려

- 특히, 東北地區는 종합화학공업단지, 전국 최대의 자동차 공업기지 건설(길림성)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의 자동차 부품과 화공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임

□ 한국 대부분의 산업은 중국의 11·5계획이 종료되는 2010년에는 중국에 거의 추격을 당할 것임

- 한·중 기술격차 : 디지털 가전 1~2년, 철강 1~4년, 금형 3~5년, 건설기계 5년, 자동차 부품 2~3년(산자부, '05)

□ 이에 따라, 과거의 육체국가의 발전전략을 전환하여, 제한된 자원을 고부가 가치분야에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두뇌국가의 발전전략이 필요**

- 두뇌국가의 발전전략은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경쟁력 있는 산업에 특화**, 인적자원·연구개발 투자로 지식경제 인프라 확충 등으로 대별됨
- 대표적인 국가로는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로 분류

□ 우리나라가 두뇌국가로 도약함에 있어서, 약점은 **중국보다 클러스터 형성에 취약한 경제**에 기인

□ 그 이유로는 정부가 산업화 및 지식경제화 과정에서 군집에 의한 경제성장 모델이 아니라 **대기업군에 의한 경제성장 모델을 선택**하였기 때문임

- 한국의 산업은 망망대해의 고도(孤島)가 됨(Monitor Company, 「Knowledge for Action : Transforming Korea into Knowledge Driven Economy」 ('98)
- 혁신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개발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함

□ 그리고 대학의 산업기여도 미흡과 지식유통의 중심이 되어야 할 **분야별 산업 협회가 신규참여자를 막는데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임

- 분야별 산업협회는 산업군집의 중심에 서서 그 산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 산업의 표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임무임

□ 앞으로 한국이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두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 유명대학의 유치와 대학의 경쟁구조화, 산업별 협회를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정책이 긴요

- R&D지원의 혁신 : 대학중심 → 협회중심
- 세계적인 공과대학원 및 연구소 유치 → 한국을 동북아 R&D센터로 육성해야 함

## 2) 서해안권의 역할과 과제

- 지난 40년간 기존의 경부축이 일본·미국 위주의 교역루트였던 것과 달리, 서해안 축은 거센 중국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新국토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서해안 축은 풍부한 가용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항만과 국제공항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 생산거점, 물류중심의 글로벌 종합기능 도시권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서해안권은 동북아 5대 대도시간의 물류결절점에 위치하며, 비행기로 3시간 30분 거리에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43개 소재
  - 동북아 5대 대도시간 거리의 합계 : 경기만 3,648km, 동경 5,952 km, 북경 5,376km, 상해 5,216km, 블라디보스톡 4,704km

광개토대왕은 경기만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 인천과 화성 등 경기만 3곳에 대한 상륙작전을 벌여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백제의 대외 국제항로를 빼앗기도 했다.

한민족의 역사는 시베리아와 몽고 등을 거쳐 한반도에서 일본과 산둥, 인도까지 진출한 역동적이고 모험적이고 적극적인 민족성을 가졌고 그 중심에 경기만이 있었다.  
(윤명철 동국대 교수, '03)

- 즉 21C 동북아 경제권 부상과 중국발 3대 수요(생산재, 지식정보, 관광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해안권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
  - 서해안권을 지식과 정보, 생산, 문화, 관광의 동북아 중심지로 부상시키고, 그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임
  - 중국의 경우에도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외자유치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했고, 아시아에 대한 FDI의 50%를 흡수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
- 특히 중국의 제2의 푸둥 프로젝트<sup>1)</sup>, 일본의 대도시권벨트화 프로젝트와 같은

해양지향형 국토경영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BESETO전략의 핵심축인 ‘경부축’에서 ‘서해안축’으로 개발방향을 수정해야 함

- 기존의 경부축 지역은 국토면적의 11.8%에 전체 인구의 55.1%가 거주, 수도권보다 집중도가 훨씬 높고 과밀화가 심각



〈중국 수도권 공간개조계획〉

〈일본 대도시권벨트화계획〉

□ 서해안축을 활용하기 위한 유력한 해법의 하나는, 생산요소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서해안의 넓고 저렴한 간석농지를 위시한 유휴지를 개발해야 함

- 중국은 저렴한 임금(한국의 1/10) 및 첨단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의 장기 무상임대(경제특구의 경우 50년간 무상임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 서해안권에는 새만금(2억82만㎡), 시화지구(4,397만㎡), 화옹지구(6,212만㎡), 영암지구(약7,900만㎡), 금호지구(4,500만㎡) 등 많은 지역에서 농업용지가 공급될 예정임

□ 이러한 서해안권의 유휴지의 활용방안은 장기 무상임대 등의 방식으로 국내외

1) 중국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을 화남(華南)지역 핵심 경제구인 주강삼각주경제구와 화동(華東) 지역 핵심 경제구인 장강삼각주경제구와 함께 중국 경제성장의 3대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環발해만경제발전계획(2000)을 추진 중으로, 수도권인 環발해만은 '04년 현재 21.9%의 GDP 성장률, 중국전체의 약 29% 차지.

- 기업투자를 유치하여, 서해안권을 두뇌국가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임
- 2003년 전체 산업용지 중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용 면적비중은 2.8%에 불과함
- 최근 토지가격의 급상승으로 기업의 입지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초기자금 부담이 큰 분양형 산업단지 공급보다는 입주자금 부담이 적은 임대형 산업단지 공급 확대 필요

- 또한 서해안권 중에서 인천에서 평택에 이르는 경기만을 일본이 과거에 京浜 임해부를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한 것처럼,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 3만불 달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교두보가 되도록 해야 함

일본은 1999년에 경병임해부(도쿄-요코하마)의 공장재편과 유희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경병매립지의 일정구역에 대해서 공업등제한구역으로부터 제외함  
 우리나라도 두뇌국가 건설의 거점인 경기만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권역으로부터 제외하는 정책추진이 긴요

### III. 서해안권 발전전략의 현주소와 문제점

#### 1. 서해안권 개발의 현황

##### 1) 서해안권 개발의 주요사업 현황

- 현재의 서해안권 개발은 크게 인천경제자유구역, 태안 기업도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전라남도의 J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 2억㎡에 달하는 면적에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로 나누어 개발되고 있음
  - 송도지구 :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춘 각종 바이오 센터, 컨벤션 센터 등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육성되고 있음
  - 영종지구 : 인천국제공항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항공 물류거점 및 해양관광 레저단지로 개발되고 있음
  - 청라지구 : 국제위락, 국제금융단지로 추진되고 있음
- 태안 기업도시는 총 1,464만㎡의 면적에 2020년까지 약 9조원을 투입하여 국

제비즈니스, 고급 골프장, 문화 테마파크 등을 갖춘 **첨단복합도시**로 개발될 계획임

-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2030년까지 약 9,630만㎡의 지정면적에 **미래형 신산업 핵심생산기지 및 국제관광, 레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될 계획임
-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J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약 2,050만㎡의 면적에 **골프장과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임

**2) 서해안권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현황**

- 서해안 갯벌은 캐나다 및 미국 동부해안, 북해연안 및 아마존강 유역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지역**임
- 갯벌은 과거에는 어민들의 소득원으로 인식하거나 자연생태계 학습장으로만 활용되었으나, 최근 **청소년·가족단위를 대상으로 건전한 체험관광이 늘어나는 추세**임

**《서해안 지역의 관광지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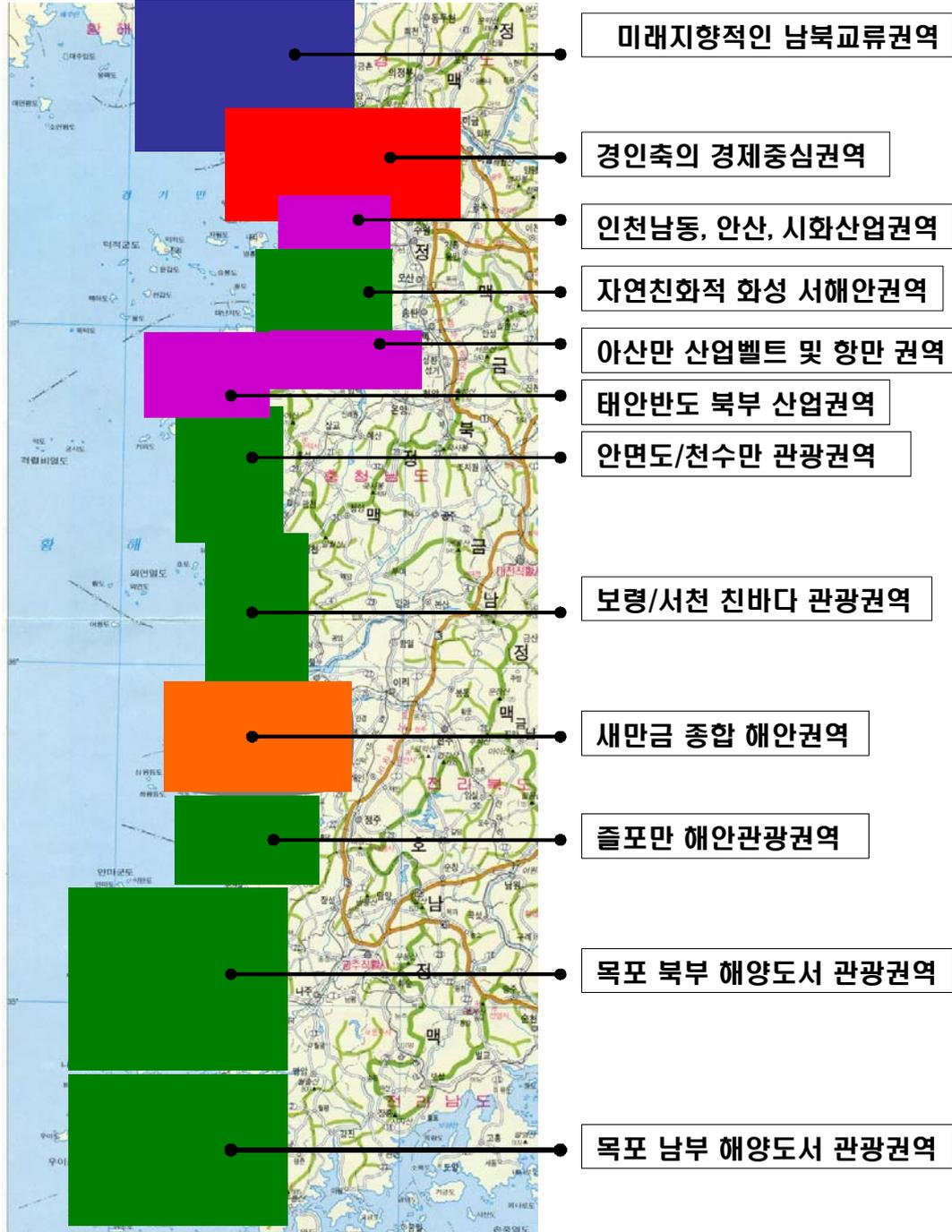
구 분	개 소	면 적(만㎡)	관 광 지 명
대상지 계	24개소	1587.7	
경기대상지	2개소	76.6	평택호, 내리
충남대상지	12개소	853.2	대천, 무창포, 죽도, 신정호, 아산온천, 금강하구둑, 춘장대, 안면도, 삽교호, 난지도, 왜목마을, 간월도
전북대상지	6개소	448.1	은파, 김제온천, 금강호, 석정온천, 위도, 모항
전남대상지	4개소	209.8	불갑사, 대광, 사포, 회산연꽃방죽

자료 :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 서해안 지역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간석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고, 동해안과 남해안에 비해 수심이 깊지 않아 남녀노소 모두 **해양관광을 즐기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서해안의 권역별 특성》

## 서해안의 권역구분과 권역별 특성



- 해양수산부의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따르면 해양관광의 참여인구는 2003년 9천2백만명(전체인구의 26.8%)에서 2010년 11천 6백만명(전체인구의 31%)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별로 보면 동해안 50%, 남해안 34%, 서해안 13%, 제주 3%로 나타나 서해안의 비중이 낮음
- 따라서 서해안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4계절 관광지, 해양테마파크, 해양거점 관광지 등의 조성과 기존 관광지의 정비 등을 통해 증가하는 해양관광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해양관광 참여인구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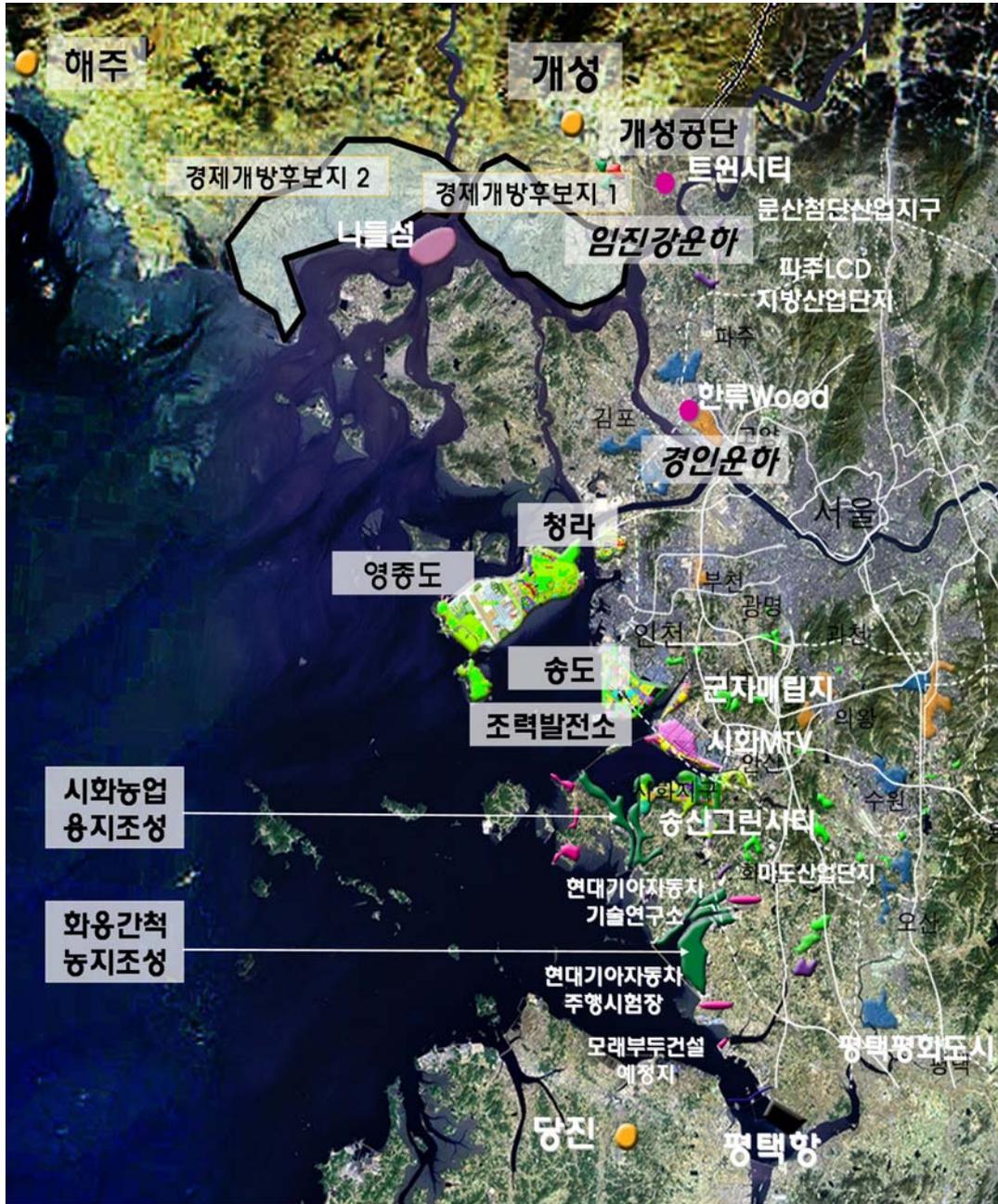
(단위 : 천명, %)

구 분	1997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10년
전체 관광참여인구	317,337	301,795	326,232	343,853	369,526
해양관광참여인구	74,143	72,129	84,404	92,060	116,431
백분율	23.4	23.9	25.9	26.8	31.4
해 수 욕	56,579	55,042	63,643	68,741	83,080
바다낚시	5,200	5,059	5,849	6,578	8,658
해양스포츠	1,034	1,006	1,574	2,394	6,368
해양연관형	11,330	11,022	13,338	14,347	18,325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3) 경기만의 개발 현황

《경기만 개발계획 현황도》



범 령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기타 사업	

《경기만 개발계획 현황표》

구분	번호	사업명	위치	면적 (만㎡)	개발 내용	사업 기간	비고
산업 단지	1	문산첨단산업지구 (당동·선유)	파주시 산읍·파주읍	198	산업용지	2004.11~ 2008.12	파주시
	2	파주LCD 지방산업단지	파주시 룡면·탄현면	132	산업용지	2003.7~ 2007.12	파주시
	3	화성화남산업단지	화성시 서신면 일원	20	산업용지	2000~ 2007.12	(주)대덕기 업
	4	화성장안산업단지	화성시 장안면 일원	122	산업용지	2005~2008	화성시지방 공사
	5	마도산업단지(완)	화성시 마도면 상송리	93	산업용지	1995~2005	화성시
택 지 개 발 지 구	1	시흥장현지구	시흥시 장현동 일원	291	택지개발	2007~2011	주택공사
	2	시흥목감지구	시흥시 목감동	175	택지개발	2007~2011	주택공사
	3	시흥 능곡지구	시흥시 능곡동	96	택지개발	2002~2007	토지공사
	4	군자 도시개발사업	시흥시 정왕동 한화매립지	486	도시개발	2006~2012	시흥시
	5	남양1 도시개발사업	화성시 남양동	66	도시개발	2003~2007	화성시
	6	남양2 도시개발사업	화성시 남양동	258	도시개발	2005~2011	토지공사
	7	화성 봉담지구	화성시 봉담면	76	도시개발	2002~2007	주택공사
	8	화성 향남지구	화성시 향남면	169	도시개발	2002~2008	토지공사
	9	화성 향남2지구	화성시 행남면	317	도시개발	2004~2011	토지공사
	10	광명 소하지구	광명시 안동·소하동	106	임대단지	2003~2007	주택공사
기 타	1	시화MTV	시화호 북측간척지	1,047	산업용지	2002~2016	수자원공사
	2	조력발전소 건립	시화방조제	-	전력생산	2003~2009	수자원공사
	3	시화농업용지조성	시화호 남측간척지	4,397	농지조성	1998~2012	농촌공사
	4	송산그린시티	시화호 남측간척지	5,712	관광 레저	2001~2013	수자원공사
	5	시흥 폐염전개발	시흥시 장곡동	476	갯벌,생태 공원 등	2007~2011	시흥시
	6	화옹간척농지조성	화성시 화옹방조제	6,212	농지조성	1991~2012	농촌공사
	7	한류-Wood 프로젝트	고양시 일산 장항동	99	문화시설	2004~2010	경기도

## 2. 서해안권 개발의 문제점

### 1) 규모의 경제측면

- 중국 동부연안의 주요 경제개발구 면적이 약 35억㎡로서 중국경제를 견인하고 있음
- 반면에 한국 서해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약 2억㎡, 황해경제자유구역 6,813만㎡, 새만금 9,630만㎡을 합쳐 약 3억 6,000만㎡에 불과함

《서해안권의 경제자유구역 현황》

지역	위치	면적(만㎡)	개발조성비
인천	송도, 영종, 청라	2억㎡	15조 680억원
황해(경기·충남)	평택 포승·화성 향남, 충남 서산·당진·아산 일대	6,813만㎡	6조 9,996억원
새만금	전북 새만금 일대	9,630만㎡	8조 4,000억원
합계	-	3억6,443만㎡	30조 4,676억원

- 그리고 현 정부의 5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은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보다는 국가균형발전전략에 기반한 것으로 그 실효성이 약함
  - 수도권 규제와 지방분권의 미흡으로 개발주체의 추진역량이 미흡
  - 국제적 수준인 3억3,058만㎡에 비해 규모가 작고, 배후도시가 취약
  - 배후시장이 적어 외국인 투자유치가 저조
  - 산·학·연 연계기능이 취약해 기존의 산업단지 수준에 머물
- 중국의 경우, 경제특구 중심의 외자유치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아시아 FDI의 50%를 흡수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한 만큼, 중국 경제특구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함

2) 급증하는 대중국 관광객 수용측면

- 중국의 해외 관광객수는 '04년 2,800만명 → '06년 3,450만명 → '20년 1억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고, 고소득 소비층도 '10년에는 2.5억명에 달할 전망이다
  - 중국의 가처분 소득증가로 2010년에는 명품, 친환경 상품, 디지털 등의 고소득 소비층이 2.5억명에 이를 예상임
- 2007년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수는 약 백만명 정도로 전체 방문 외래 관광객수의 17.4%를 차지하는 등 급증하고 있음
  - 중국관광객은 증가하고 일본관광객은 감소하는 추세

《중국관광객 증가추이》

구 분	2001	2003	2005	2007
총관광객수	4,860,619	4,462,134	5,742,288	6,154,179
중국관광객수	482,227	512,768	710,243	1,068,925
비율	9.9%	11.5%	12.4%	17.4%

자료 : 한국관광공사(각년도), 한국관광통계

- 전체 외래관광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9.9%에서 2007년 17.4%로 2배이상 상승한 것으로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중국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므로, 서해안권에 관광, 의료, 교육, 레저, 휴양 복합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임

IV. 서해안권의 대중국 광역경제특구 조성방안

1. 대중국 광역경제특구 조성의 필요성

1) 서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모의 경제 확보측면

- 대도시경제권 시대에 있어 핵심거점지역의 경제특구 측면에서 비교할 경우, 서해안권의 각 경제자유구역은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열위를

면치 못함

- 인천 2억㎡, 텐진 빈해신구 22억7,000㎡, 상해 포동신구 5억3,300㎡, 홍콩 3억2,600㎡

- 국제적으로 경제특구가 생산단지, 물류기지, 서비스시설, 주거단지, 위락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억㎡ 이상이 되어야 함(삼성경제연구소)
- 따라서, 서해안권의 경제자유구역(인천, 황해, 새만금)이 對중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 내지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함

##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보완측면

- 중국의 고속성장에 따른 한중간 교역급증 요인을 고려할 때, 중간재 생산기능이 부가된 클러스터형 초광역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매우 중요함
- 중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완성품의 조립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부품산업은 물론 고부가가치 부품산업에 대한 대중국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이러한 중국의 고부가가치 부품산업의 수요증가는 높은 경쟁력 및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서해안권에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품산업 산업기반 및 성장잠재력을 가진 서해안권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 전략산업인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중요함
  - 부품산업 생산액의 비중 : 전체 제조업의 42%, 고용비중은 47%, 347억 달러의 무역흑자('06)
  - 부품소재산업의 對日 적자규모 : 1,780억 달러('90 →'06)로 전체 대일 무역적자 규모(2,287억 달러)의 77.8%를 차지함
    - ⇒ 산업용지가 2.2%에 불과하여 산업집적이 취약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황해 및 새만금에 연계시킴으로써 중국의 핵심거점 지역인 포동·빈해신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인천과 황해 및 새만금의 결합을 통한 산업형 경제자유구역 형태의 클러스터 형성은 홍콩을 중심으로 한 주강삼각주, 포동을 중심으로 한 장강 삼각

주 및 빈해신구를 중심으로 한 환발해만 지역의 모델인 **Front Shop + Back Factory** 개념과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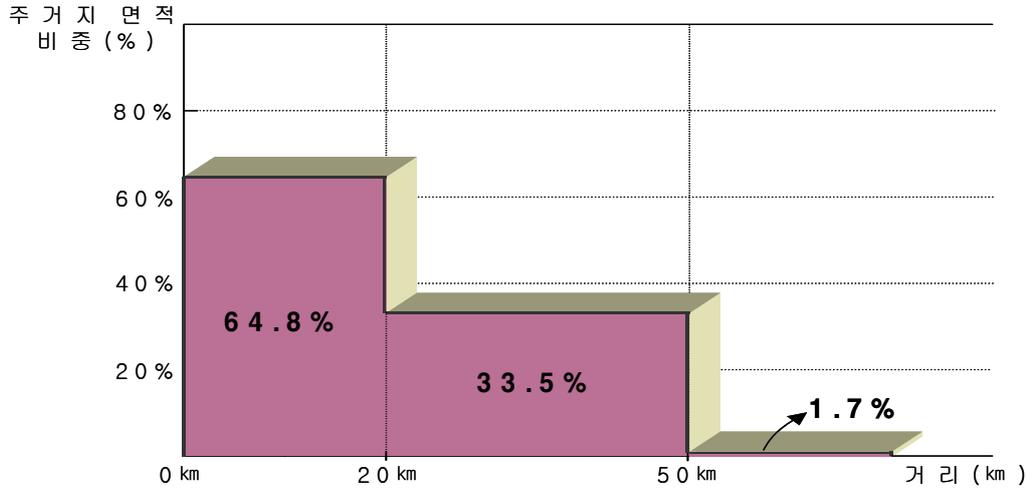
### 3) 수도권 산업용지난 해소측면

- 현재 수도권 지역은 도시용 토지공급 부족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첨단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음
  -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 추이(경기도) : 564천원/3.3㎡('03년 이전) → 830 천원/3.3㎡('03년 이후) → 2,023천원/3.3㎡('07)
- 이러한 수도권의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화지구 및 새만금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농업용지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시화지구의 국·공유 간척지는 1억7,854만㎡이나, 이중 1억560만㎡를 농업용지로 조성중임
  - 새만금의 국·공유 간척지는 1억7,770만㎡이나, 이중 1억3,080만㎡를 농업용지로 조성중임
- 따라서 서해안권 간척지를 활요하여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게 되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막고 국내기업의 U턴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

### 4)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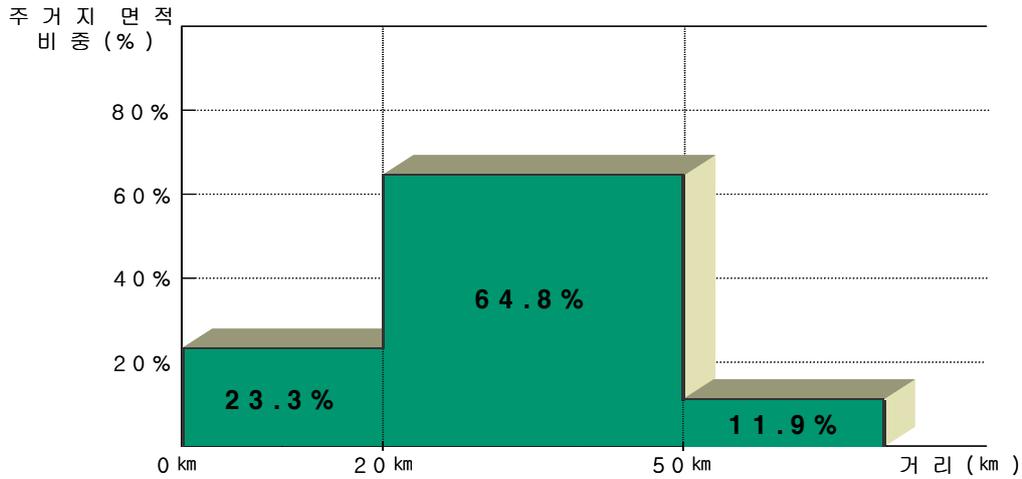
- 1982년 이후 수립된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하여 서울인구와 시설을 외곽의 경기도(성장관리권역)로 분산시키고자 하였으나, 경기도내 산업과 대학의 억제로 말미암아 실패함

《한국의 수도권 공간구조도》



- 수도권 규제로 말미암아 분당과 일산과 같은 기존 신도시는 주거기능만 있는 베드타운으로 전략함

《일본의 수도권 공간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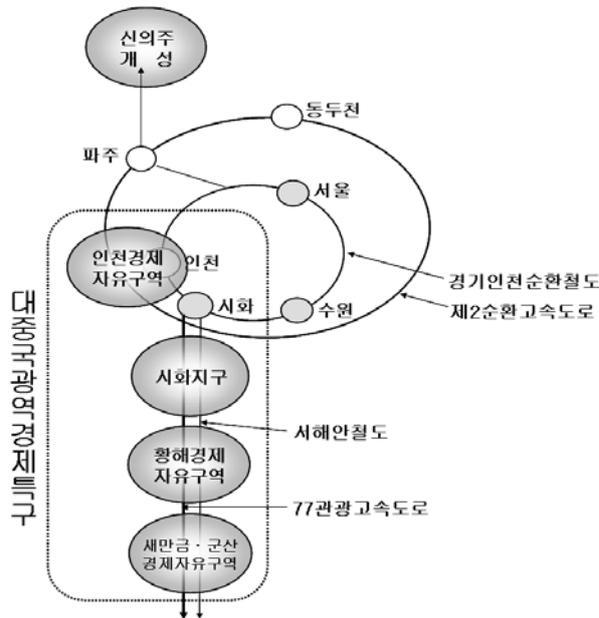
- 따라서 서해안권에 외국인 상대의 교육기관이나 외국대학 분교 등이 들어설 경우, 서울 강남 등의 중산층 인구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인 교외화 시대의 개막을 촉진시킬 것임

## 2. 서해안권 대중국 광역경제특구 조성의 기본구상

### 1) 대중국 광역경제특구 조성의 기본 컨셉트

-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① 부품산업 수요, ② 지식정보 수요, ③ 관광문화 수요를 활용하여 서해안권을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해야 함
- 나아가 그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토경영전략이 시급함
- 이러한 국토경영전략의 실천을 위해서는 IT강국 강점과 서해안권의 역할 강화에 맞추어 인천, 시화지구 일대와, 새만금 일대를 거점으로 하는 광역경제특구의 구상을 추진해야 함
- 광역경제특구는 인천 및 시화지구 일대, 군산산업단지를 포함한 새만금 일대를 통합하고 기능별로 연계·개발하여 대중국 전진기지로 함
  -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 국제교류 기능, ② 시화지구 : R&D·문화관광 기능, ③ 황해경제자유구역 : 첨단·물류서비스 기능, ④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 新산업(신재생에너지 등)·문화관광기능

《대중국 광역경제특구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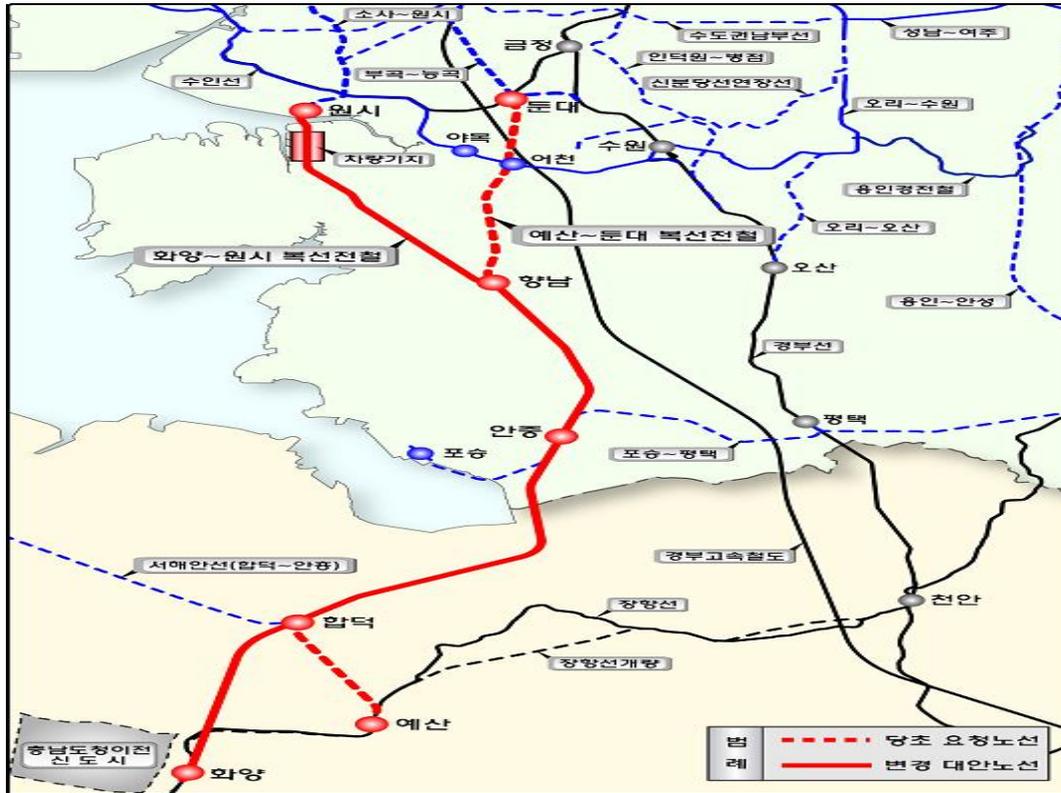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기본방향》

대상지역	도입기능	도입시설	면적
시화 MTV	첨단제조	· 첨단산업클러스터	1,047만㎡
송산그린시티	R&D, 문화관광	· 사이어스 파크, 관광레저 및 생태주거도시	5,712만㎡
군자지구	주거	· 배후 주거단지	486만㎡
시화농업용지	첨단제조 · 농업, 레저	· 첨단제조업 · 농업, 레저단지, 배후 주거단지	4,397만㎡
화옹농업용지	첨단제조 · 농업, 레저	· 첨단제조업 · 농업, 레저단지, 배후 주거단지	6,212만㎡
합계			1억7,854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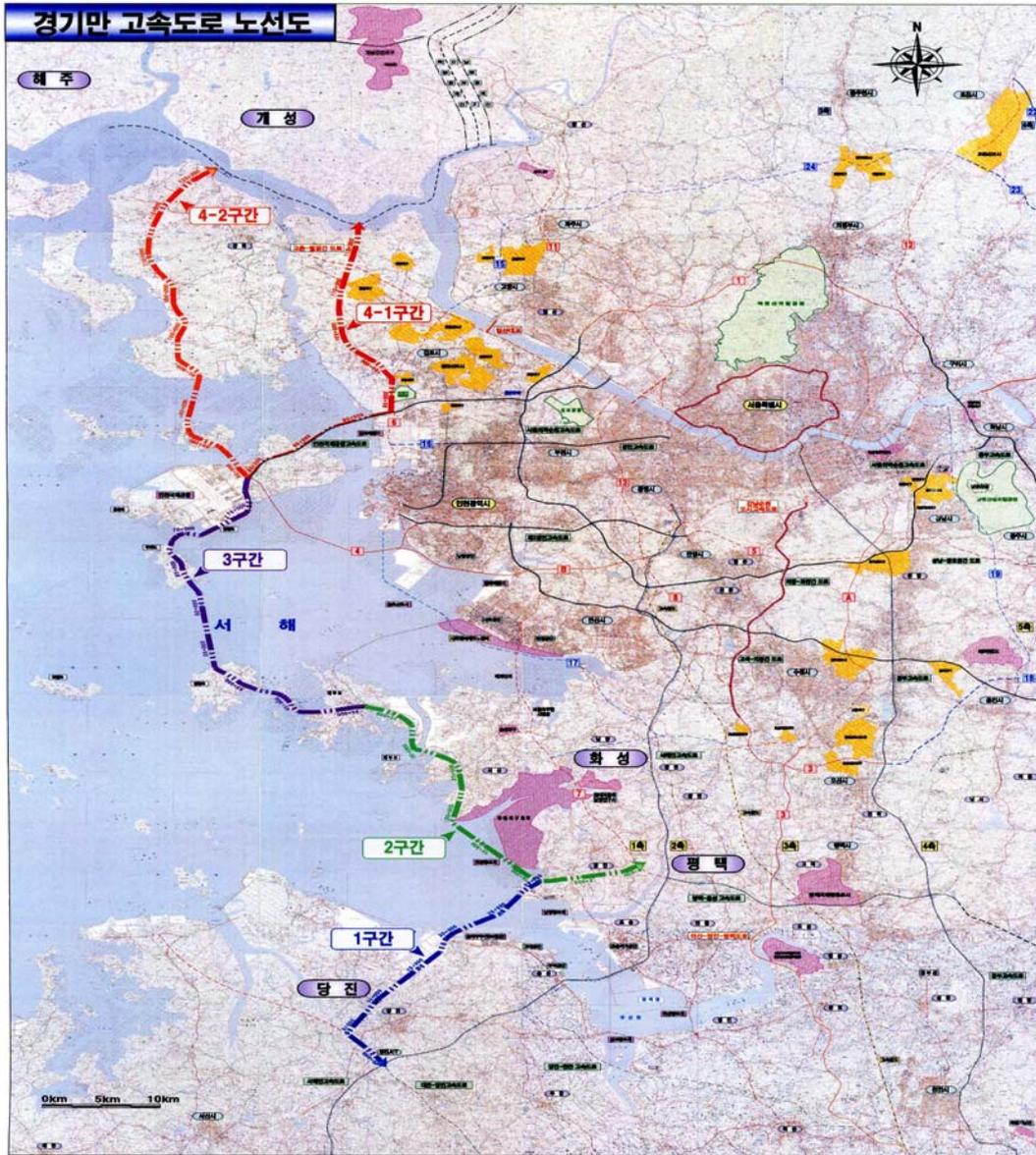
- 둘째, 인천에서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교통인프라의 조기구축이 긴요함
- 수도권외의 경우, 물동량은 2011년 397,182TEU에서 2020년 709,441TEU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지역의 물동량도 2011년 146,574TEU에서 2020년 273,357TEU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한국해양수산연구원, '07)
- 한중간, 남북간 물동량이 급증하는 서해안권은 고속도로 및 철도노선이 부재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해안권 자체의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해안철도의 조기개통을 위해 수인선 원시역 - 향남 - 안중 - 장항선 화양역의 조기 건설이 시급함
  - 서해안철도 : 경의선 대곡역 - 인천항 - 수인선 원시역 - 서해안선 - 장항선 화양역 - 군산선 - 전라선 - 광양항

《서해안철도의 신개발구상도》



- 또한 서해안권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기만 고속도로망의 건설이 필요
  - 서해안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개방 후보지와 인천국제공항, 대부도, 태안반도를 잇는 경기만 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요
- 경기만 고속도로의 노선 구간별 공사비는 당진~김포~개성 노선은 4차로 고속도로 신설의 경우 6조 6,020억원, 6차로 신설의 경우 8조 6,82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 당진~강화~개성 노선은 4차로 고속도로 신설의 경우 8조 3,448억원, 6차로 신설의 경우 11조 1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GRI, '07)

《경기만 고속도로의 신개발구상도》



- 셋째, 인천에서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대중국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두바이 개발사레처럼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함

《두바이의 ‘제벨알리 경제자유지역(JAFZ)’의 사례》

구분	주요 내용
규모	100km <sup>2</sup> (3천만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규모)
장점	<u>외국인에 의한 경영권 인정</u> , <u>세금면제</u> , <u>외환자유</u> , <u>외국인 노동자 자유 채용</u> , <u>과실송금에 대한 규제 전무</u>
공항	35km 거리인 두바이국제공항 위치
항만	JAFZ내에 총연장 15km의 67개 부두 갖춘 세계최대항구 보유
성과	· 1985년 입주업체 19개사 → 현재 약 5,000여개사 (260배 증가) · 무역·물류·창고업 70%, 제조업 20%, 운송 등 서비스업 10% 등
파급효과	· 2004년 말 현재 JAFZ 내 직접고용인력 약 5만명 · 두바이 교역의 40%가 JAFZ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중동지역 진출 유력기업 대부분 JAFZ내에 중앙 물류센터를 운영
성공요인	· 4無(無세금, 無제한 외환거래, 無스폰서, 無노동쟁의) · 관세,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 전혀 없음 ·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100% 본국으로 송금가능 · 2多(多양한 물류여건, 多양하고 편리한 지원시스템) · 제벨알리 港과 두바이국제공항을 통한 물류망 구축

IV. 결 론

- 대중국 광역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가 3억m<sup>2</sup>가 넘어 포동 및 빈해신구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둘째, 비즈니스 및 물류중심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산업·문화관광중심의 시화지구·환해·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간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형성시킬 수 있음

- 셋째, 중국의 첨단산업화에 따른 고부가 가치의 부품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
- 넷째, 인천에서 새만금에 이르는 문화관광벨트를 통하여 폭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대중국 광역경제특구는 수도권 규제등 다양한 토지이용규제를 받기 때문에, 국내외 대기업 투자자들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대중국 광역경제특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新정부의 경제비전인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이 대중국 광역경제특구를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육성하고, 그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남해안 개발계획」, 2000.
-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
- 건설교통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계획」, 2004.
- 경기도, 「경기비전 2020」, 2006.
- 경기개발연구원 · 전남발전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 · 전북발전연구원 · 인천발전연구원, 「서해안축 중심의 동북아 물류허브 건설」, 제3회 서해안 포럼 결과보고서, 2005.
- 김도훈, "한·미 FTA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산업경제」, 2007.
- 김수동, "한·미 FTA에 따른 국내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산업경제」, 2007.
- 남덕우,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 문미성 외, 「도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3.
- 문화관광부, 「2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00.
- 문화관광부, 「관광진흥 5개년 계획」, 2004.
- 문화관광부,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 2003.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2002.
- 삼성경제연구소, 「2007 국내경제전망」, 2006.
- 안형도, "동북아경제통합과 한국의 전략", 심포지움 발표자료, 2007.
- 양창호 외, 「한강하구 및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대한 물류시설 이용 방안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2005.
- 윤양수, "동북아 관광거점육성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 세미나, 2004.
- 이상대,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 발전전략 : 대경기만의 개발구상 및 전략」, 경기개발연구원, 2007.
- 전경련, "경제특구 관련제도의 실태와 시사점", 2002.
- 조성호 외, 「민선 4기 1년 성과평가와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 조성호 외, 「경기만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7.
- 지우석 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기개발연구원, 2006.
- 한국관광공사, 「서해안 및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2004.
- 한국지역학회, 「공업지역 수요 및 타당성 조사용역」, 2004.
- CIA, 「World Fact Book」, 2006.